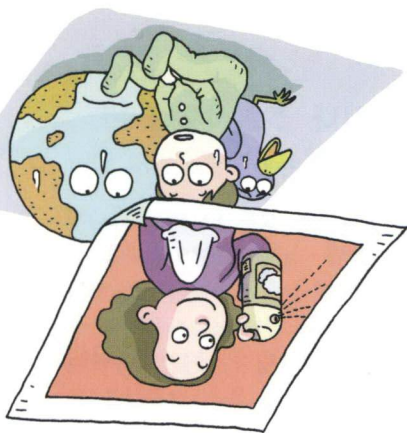




이러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내 유해화학물질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간강소비생활에 대한 녹색연 소비자상담실을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 아무리 안전하다는 광고를 한 제품도 늘 위해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노력합시다
- 합성세제 대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세제를 사용합시다
- 상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표시사항을 찬찬히 읽어보고 사용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 시전 경고없이 이루어지는 집단방역에 항의합시다!
- 충분한 환기를 잊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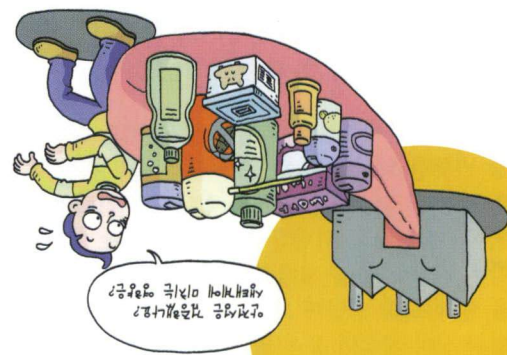
간강소비생활에 대한 녹색연 소비자상담실을 이용하십시오.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건강피해, 건강상품이용피해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각종 건강소비생활과 관련된 비용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해 드립니다.

■ 전화상담 : 02-747-4998 ■ 팩스 : 02-3672-4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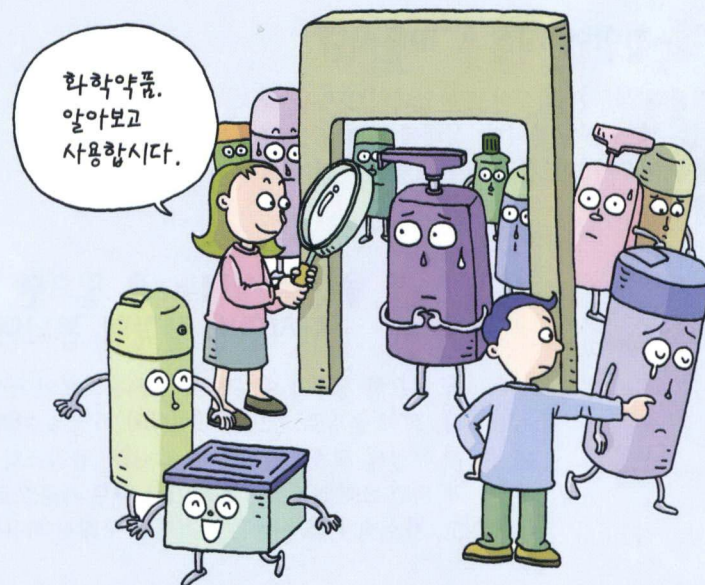
■ 온라인상담 : www.gcn.or.kr/소비자상담실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가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유독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36,000여종, 23,000만종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마다 2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들어오고 있지요. 산중제, 방부제, 표백제, 착색제, 방향제, 공기청정제, 방습제, 곰팡이 제거제, 습기 제거제, 세제, 콘택트렌즈 세척제, 가구광택제, 하수구세척제, 유리세척제, 동결 방지제, 접착제, 등 이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면서 이들 유해물질 노출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해물질 노출이 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이를 유해물질의 유해성이나 노출 정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내 유해화학물질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가정내 유해화학물질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충분한 환기를 시켜줍니다

새 가구는 따뜻한 방 안에서 많은 석유 화학 물질 증기를 내뿜게 됩니다. 바닥 전체를 덮는 합성 섬유 카펫과 그 내부에는 포름알데히드가 들어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에서도 증기가 발생합니다. 텔레비전, 스테레오, 컴퓨터 등도 전자파를 소량 방출하며 양이온을 많이 만들어 내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습도를 낮춥니다. 새 가구를 들여놓았을 때, 전기제품을 많이 사용할 때는 늘 충분한 환기를 하도록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광택제와 얼룩 제거제는 용매를 비롯한 화학 물질을 공기 중에 내보내며 그 물질은 통풍 상태가 좋지 못한 실내에서 인체에 자극을 주고 건강을 위협합니다. 천연 밀랍 광택제와 같은 비화학 물질 세척제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안에 자연 향기를 더해 줍니다. 만일 욕실이 침실에 붙어 있다면 천연 세제나 자연분해가 되는 세제만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세제 제품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침실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곳에는 화학물질 제품을 두지 않습니다

스프레이 방부제, 헤어 스프레이, 향수 따위가 침실에 있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쉽게 위협받으므로, 사람이 잠을 자지 않는 다른 방이나 통풍이 잘 되는 욕실로 옮기도록 합니다. 또한 새 옷이나 드라이크리닝한 옷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었다가 침실로 옮겨걸거나 여러 차례 세탁을 한 후 침실로 옮겨놓도록 합니다.

집안에 식물을 키웁시다

장풀과 식물은 침실의 포름알데히드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내에 잎이 넓은 식물을 키우면 습도를 높혀주고 공기를 맑게 해 줍니다.

새 물건을 살 때는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새 가구나 카펫의 구입을 자제합니다. 화학 물질로 만드는 세척제와 가정용 기름 등을 차례차례 무공해 제품으로 바꾸어 갑니다. 플라스틱 제품이 못 쓰게 되면 스테인리스나 도자기나 나무 제품으로 바꾸도록 하고, 가소제가 들지 않은 접착제를 구해서 사용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피해를 줄이기 위한 10가지 방법

우리집안에 어떤 유해한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건강상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제품의 표시나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읍시다

가정용 살충제를 구입할 때는 성분표시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용법·용량, 효능·효과를 숙지하여 구제하고자 하는 해충에 정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며 과다 사용치 않도록 합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하며, 마스크·장갑 등을 착용하는 등 가능한 인체노출경로를 차단 혹은 노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사용에 유의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기어다니거나, 물건을 핥거나, 빨면서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분사 혹은 도포시 어린이들의 인체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살충제를 둡니다.

제품의 독성정보에 관심을 가집니다

가능한 여러 가지 살충제에 동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시사용을 주의합니다. 기업과 정부는 가정용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규명되는 독성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정확히 홍보토록 하며 규제가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집단방역에 대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집단방역시에는 어떤 성분의 살충제를 사용하는지, 방역과정에 주의할점이 무엇인지, 방역후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사전경고나 설명없이 시행되는 방역에 대해 항의합니다.

라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합니다

가정용 살충제는 일반 쓰레기와 구분되어 폐기되지 않으면 살충제로 인한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농촌에 버려진 농약 병들이 토양오염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폐전지, 플라스틱 등과 같이, 살충제도 별도로 분리 수거되고,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폐기시에 살충제 표시가 명확히 된 상태에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라벨을 제거하지 말고 분리하여 버리도록 합니다.